

「紙きれ」をたよりに

一九三一年、徐善汝は一枚の「紙きれ」をにぎりしめ、釜山から日本の下関に向かう船の中にいた。

善汝は、全羅南道の片田舎の貧しい農家で生まれた。朝鮮が日本に併合される三年前である。

善汝の母は、女の子である善汝にも教育を受けさせたいと、村の学校に通わせてくれた。しかし、善汝の学校生活は、たった三日で終わった。

祖母の猛反対にあつたからである。女がブルマーをはいて、太もも出して足をあげていることと、「女に学問はいらん」という理由からだつた。善汝は、祖母からのしられている母のため、学校へ行くのをやめた。

母について田畑や家のしごとは、なんでも手伝う、おとなしいが芯の強い子でもあつた。

二十歳になつた一九二七年、親どうしが決めた顔も見ることがない朴学柱といつしよになつた。この頃には、村の働き手が一人、二人といなくなつていた。

善汝シニニヨの夫は六人きょうだいの末っ子で、耕す田畑もないので、よその田畑を手伝っていた。そのうち、土地の持ち主がいつの間にか変わり、働き場もなくなってしまった。食べんがため、生きんがため、日本に出かせぎに行かざるを得なかったのである。

生まれて間もない二人の子どもも、育つことなく死シニニニヨに、悲しみにくれていた善汝も、夫を追って一年後、日本に行くことを決めたのである。

ふるさとの村からふるしきづつみを頭にのせ、河東ヘドシ駅キョウサンナムド(慶尚南道の西側)まで約三時間の道のりを歩いた。河東ヘドシから釜山プサン、そして下関へ。見知らぬ地へいくことヘドシの不安は、言葉で言い表すことは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村のもの知り老人が書いてくれた夫の住所、その紙きれ一まいをたよりに。

大阪駅にむかえにくるはずの夫は、何時間待っても現れなかった。のんだくれて迎えにくることを忘れていたのである。善汝シニニニヨは「紙きれ」と「ちゆるはしちゆるはし」の言葉ひとつをたよりに、夫のいる「ちゆるはし」にたどりついた。

西宮の^{ほまこうしえん}浜甲子園で^{じやり}砂利採石のしごとについていた夫は、妻がくるということで「^{いかいの}猪飼野」に家を借りていた。

この当時（一九二〇年代）朝鮮ではほとんどの人が耕作できなくなり、多くの人が日本に来ていた。

一九三五年長男が生まれると同時に、採石場の力しごとをやめていた夫は、生野区で野菜の行商をはじめていた。^{みなみたちみ}南巽にある^{けいやく}畑と契約してはぶりはよかった。

一九四一年には長女が生まれ、長男は行政からの半強制だったが幼稚園にも通わせていた。

一九四五年には未熟児に近い状態で次女が生まれた。その五ヵ月後の八月十五日、日本は敗戦国となり、朝鮮は解放された。

だれもが考えたであろう「帰国」。

^{ソンニョ}善汝の夫も、千円以上の現金の持ち出しは禁止されたため、全財産を荷物にした。しかし、生後間もない次女が生死をさまよう容態になったため、日本にとどまることを^{よき}余儀なくされた。すでに全財産を国に送ったあとだった。

日本の敗戦後、祖国に帰国しようと、多くの人が自費で船をやとい帰国するが、中には途中で遭難し、帰れなかった人が大勢いたとい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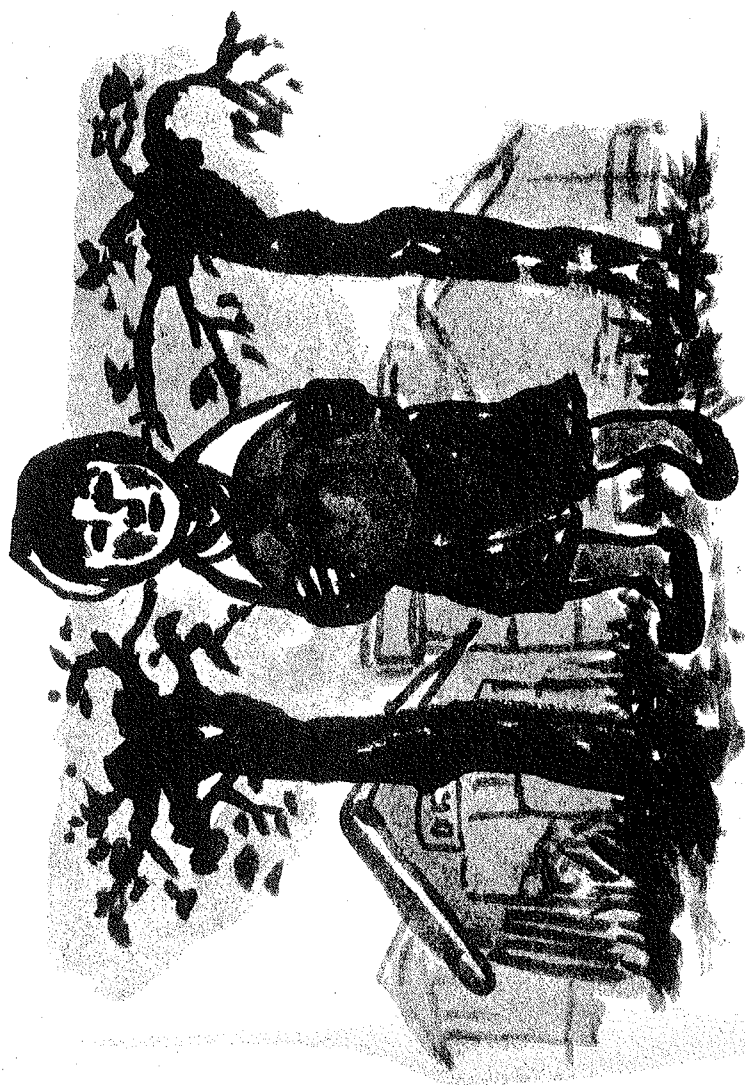
日本から解放されたあと、直ちに、ソ連とアメリカによって三八度線が引かれ、北はソ連、南はアメリカが軍政を敷くなど、朝鮮人にとって解放のよろこびはつかの間であった。

米ソ対立で、朝鮮半島は混乱し、日本国内も、騒然としていた一九四六年十二月で、朝鮮半島への引き揚げ船は、ストップすることになった。

善汝たちが在日朝鮮人一世は、現在、在日人口の数%で、その数もだんだん減っていつている。善汝のような一世、息子、娘の二世、孫の三世、四世、五世が旧植民地出身の在日朝鮮人である。

善汝は次女の容態もさることながら、帰っても耕す土地も家もなく、結果的には日本に残留せざるを得なかった。また日本で働いてお金をためて帰国すればいいという善汝たちの結論が、その後の日本でのきびしい生活になろうとは思ひもしなかった。

ふるさとに錦^{にしき}をかざるはずだった日本への旅が、さまざまな苦痛と貧困、病気、偏見、差別のおみやげをもらったまま、この地で果て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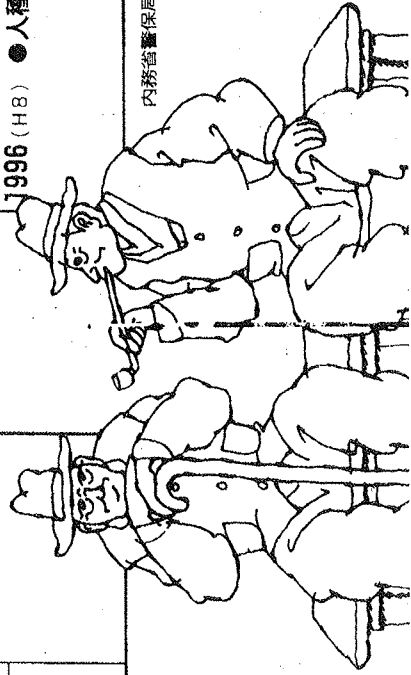
在日韓国・朝鮮人についての

1895 (M28)	●日清戦争終結 ●日本、関妃虐殺 ●抗日義兵闘争品揚	朝鮮人(戦後は韓国・朝鮮人の居住人口の推移) 1885 (M18) 1人
1905 (M38)	●日露戦争終結 ●第2次日韓協約(乙巳保護条約)	
1909 (M42)	●安重根、ハルビンで伊藤博文を射殺	1909 (M42) 790人
1910 (M43)	●「韓国併合条約」、会社令公布 ●土地調査事業開始	
1912 (T1)	●土地調査令施行	
1914 (T3)	●第1次世界大戦開始、日本参戦	
1918 (T7)	●土地調査完了 ●米騒動	
1919 (T8)	●3・1独立運動、上海に大韓民国臨時政府	
1920 (T9)	●産米増産樹立計画着手	1920 (T9) 3万人
1923 (T12)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される	
1926 (S1)	●6・10万歳運動おこる	
1929 (S4)	●光州学生抗日運動	
1931 (S6)	●「満州」暴変	1930 (S5) 30万人
1936 (S11)	●在日朝鮮人同化を目的とする協和事業実施	
1937 (S12)	●日華戦争(日中戦争) ●国民精神総動員運動 ●皇民化政策強行	

近代年表(1895-1996)

1939 (S14)	●国民動員計画(強制連行)開始 ●創氏改名	1940 (S15) 120万人
1941 (S16)	●太平洋戦争	
1942 (S17)	●朝鮮人徴用令 ●増税激化	
1944 (S19)	●朝鮮人徴兵令	
1945 (S20)	●敗戦	1945 (S20) 240万人 (この間約180万人が帰国) 1947 (S22) 60万人
1948 (S23)	●世界人権宣言採択	
1950 (S25)	●朝鮮戦争	1950 (S25) 54万人
1952 (S27)	●対日(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発効	
1959 (S3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への帰国第一船出航	
1965 (S40)	●日韓条約締結	1960 (S35) 58万人
1979 (S54)	●国際人権規約批准	1970 (S45) 61万人
1981 (S56)	●国民年金法、定住外国人に適用	1980 (S55) 66万人
1982 (S57)	●国立大学の外国人任用法成立	
1985 (S60)	●国籍法改正	1990 (H2) 69万人
1991 (H3)	●日韓外相覚書が交わされる	
1995 (H7)	●人権教育のための国連10年(～2004)	1995 (H7) 67万人
1996 (H8)	●人種差別撤廃条約加入	1996 (H8) 66万人

内務省警保局調査及び「出入国管理の回顧と展望」 「第20出入国管理統計年報」 他より



「종잇조각」에 의지하여

1931년, 서선녀(徐善汝)는 1장의 「종잇조각」을 꼭 쥐고 부산에서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향하는 배 안에 있었다.

선녀는 전라남도 시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는 3년 전의 일이다.

선녀의 어머니는 여자 아이인 선녀에게도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마을의 학교에 다니게 했다.

하지만 선녀의 학교생활은 사흘만에 끝났다. 할머니가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자가 체육복을 입고 허벅지를 내놓고 다리를 올리는 것과 「여자한테 공부는 필요없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선녀는 할머니한테 혼나는 엄마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을 그만뒀다.

엄마를 따라 밭과 집안일을 무엇이든 돕는, 어른스럽지만 마음이 강한 아이이기도 했다.

스무살이 된 1927년, 부모끼리 정한, 얼굴도 모르는 박학주(朴學柱)와 결혼했다. 이즈음에는 마을의 일꾼들이 한사람, 두사람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선녀의 남편은 여섯 형제의 막내로 경작할 전답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집의 밭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토지 주인이 어느샌가 바뀌어 일할 수 없게 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일본에 일하러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두 아이도 자라지도 못 하고 죽게 되어 슬퍼하며 지내던 선녀도 남편을 따라 일년뒤에 일본에 가기로 결정했다.

고향 마을에서 보자기를 머리에 이고 하동역(경상남도 서쪽)까지 약 3시간의 길을 걸었다. 하동에서 부산, 그리고 시모노세키로. 모르는 곳에 가는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을의 어른신이 써 주신 남편의 주소, 그 종이 한장에 의지하면서.

오사카역으로 마중하러 오기로 한 남편은 몇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술을 먹고 취하는 바람에 마중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선녀는 「종잇조각」과 「추루하시 추루하시」라는 말에 의지하여 남편이 있는 「즈르하시」에 겨우 도착했다.

니시미야의 하마코시엔에서 자갈채석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아내가 온다고 해서 「이카이노」에 집을 빌렸다.

그 당시(1920년대) 조선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왔다.

1935년에 장남이 태어나면서 채석장 일이 힘들어 그만두었던 남편은 이쿠노구에서 야채장사를 시작했다. 미나미타쓰미에 있는 밭과 계약하면서 장사는 잘 되었다.

1941년에는 장녀가 태어났고 장남은 행정으로부터 반강제이기는 했지만 유치원에도

다니고 있었다.

1945년에는 미숙아에 가까운 상태로 차녀가 태어났다. 그로부터 5개월후인 8월 15일,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고 조선은 해방되었다.

누구나가 생각했을 「귀국」.

선녀의 남편도 1000 엔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전재산을 물건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태어난지 얼마 안 된 차녀가 생사를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이미 전재산을 조국에 보낸 뒤였다.

일본의 패전후, 조국으로 귀국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 배를 빌려 귀국했지만 그 중에는 도중에 조난해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에서 해방된 뒤에 바로 소련과 미국에 의해 38 선이 끌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군정을 선포하는 등, 조선인에 있어서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한반도는 혼란스러웠고 일본 국내도 어수선했던 1946년 12월에 한반도로 가는 배는 중지되었다.

선녀들과 같은 재일조선인 1 세는 현재 재일조선인 인구의 몇%정도이고 그 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선녀와 같은 1 세, 아들, 딸인 2 세, 손자인 3 세, 4 세, 5 세가 구 식민지 출신의 재일조선인이다.

선녀는 차녀의 병도 있었지만 귀국해도 경작할 토지도 집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잔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일본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귀국하면 된다고 했던 선녀 가족들의 결론이 그 후 일본에서의 힘든 생활이 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고향에 성공해서 돌아갈 생각이었던 일본으로의 여행이 많은 고통과 가난, 병, 편견, 차별의 선물을 받은 채로 이 땅에서 끝나게 된 것이다.

執筆ならびに韓国語訳：金香都子（キム ヒヤンドジャ）

집필 및 한국어 번역：김 향도자